

사회유대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 차이*

윤 미 영**

■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의 공격성은 사회유대 요소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회유대 요소란 사람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유대 요소인 애착, 전념, 참여를 기반으로 고등학생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애착은 친구와 맷는 정서적 유대감을, 전념은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참여는 봉사활동이나 체육활동 같은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째, 학교생활과 여러 활동에는 적극적이지만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전념·참여형', 둘째, 친구와의 유대감 수준은 보통이지만 학교생활 적응과 활동 참여가 낮은 '중애착형', 셋째, 친구와의 유대감은 높지만 학교생활 적응과 활동 참여가 낮은 '고애착형'이다. 특히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고애착형)은 유대감이 낮고 학교생활 적응과 활동 참여가 높은 집단(전념·참여형)보다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유대 요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집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myoon@pusan.ac.kr

투 고 일 / 2025. 6. 9.
심 사 일 / 2025. 8. 11.
심사완료일 / 2025. 8. 22.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사회유대 요소에 따라 유형화하고, 집단 간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이 사회의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통제의 기제를 설명하며, 사회유대가 약화될수록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본다. 사회유대는 개인이 사회와 맷는 정서적·행동적 결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대의 수준에 따라 비행이 억제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의 애착, 전념, 참여 세 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사회유대 특성을 분석하였다. 애착은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전념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에 대한 헌신, 참여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각 요소는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애착), 학교생활 적응(전념), 청소년 활동 참여(참여)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유대 특성에 기반하여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32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으로 사회유대 유형을 도출하고 BCH 방법을 통해 집단 간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유대 요소에 따라 '전념·참여', '중애착', '고애착'의 세 집단이 도출되었다. 전념·참여 유형은 낮은 애착과 높은 전념·참여 수준을, 중애착 유형은 중간 수준의 애착과 낮은 전념·참여를 보였으며, 고애착 유형은 높은 애착과 낮은 전념·참여를 나타냈다. 공격성 수준은 고애착 유형이 전념·참여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이는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가 공격성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애착과 전념의 수준이 부적 관계를 보여, 청소년의 시간적·정서적 자원 배분이 사회유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유대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을 도출하고, 사회유대 유형별 공격성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형별 공격성 차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유대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회유대이론, 잠재프로파일, 청소년, 공격성

I. 서 론

청소년 공격성은 신체적·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관계적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Bushman & Huesmann, 2010). 청소년기는 호르몬 변화와 발달 과정에 있는 뇌의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Blankenstein et al., 2022). 특히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과 학업 성취를 저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불안, 우울, 대인관계 회피 등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손상을 남겨 성인기에 사회적 기능 저하나 범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Polanin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은 공중보건, 교육, 사회복지 전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청소년 공격성 연구는 주로 특정 개인 요인(예: 충동성), 환경 요인(예: 가정환경, 또래관계), 혹은 위험행동(예: 음주, 흡연)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많았다(Gomez-Leal et al., 2022; Gubbels et al., 2024; Henriksen et al., 2021; Valois et al., 2002). 그러나 공격성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다차원적 현상이며, 동일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더라도 그 배경 요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보다는 요인의 조합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을 식별하는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 공격성의 이해와 개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공격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사회유대 요소에 주목하고, 해당 요소의 특성과 조합에 따라 청소년을 서로 다른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고 비행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유대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의 애착, 전념, 참여 요소를 살펴보았다. 애착은 친구애착, 전념은 학교생활에의 적응, 참여는 청소년활동 참여로 구체화하였다. 친구애착은 청소년이 또래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공격적 행동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Veenstra & Laninga-Wijnen, 2023). 학교적응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 몰입,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학업 목표 달성과 긍정적 학교 경험이 공격성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Hofkens & Pianta, 2022). 청소년활동 참여는 견학·문화체험, 예술 감상, 또래집단 프로그램, 취미·특기 활동, 체력단련, 직업체험 등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은 건설적인 에너지 발산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통해 공격성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Wachsmuth et al., 2023).

본 연구는 사회유대 요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공격성 예방과 개입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집단과 위험 요인에 덜 노출된 집단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개입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 프로그램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공격성은 다양한 배경 요인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사회적 현상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수준의 비교를 넘어 청소년 집단 내 다양한 특성을 규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유대 요소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집단별 공격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유대 요소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유대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와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행하는 행동으로 신체적 손상, 감정적 상처, 사회적 관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행동이다(Allen & Anderson, 2017; Baron & Richardson, 1994; Bushman & Huesmann, 2010). 공격성에 포함되는 행동은 신체적 공격성인 때리기, 발로 차기 등이 있으며, 언어적 공격성인 소리 지르기, 욕설하기 등이 있다(Bushman & Huesmann, 2010). 공격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폭력(violence)이 있다. 폭력은 공격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행동의 목표가 타인에게 극단적인 신체적 위해(예: 중상, 사망)를 가하는 것에 있다(Allen & Anderson, 2017; Bushman & Huesmann, 2010). 즉, 다른 사람을 밀어서 넘어지게 했다면 그 행동은 공격행동이지만 폭력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Bushman & Huesmann, 2010). 폭력은 공격성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모든 폭력이 공격행동이지만 모든 공격행동이 폭력은 아니다(Bushman & Huesmann,

2010). 공격성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범죄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Polanin et al., 2021)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 있다(Blankenstein et al., 2022; Ramirez, 2003). 공격성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과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양상은 신경생물학적 스트레스 체계(neurobiological stress system)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각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의 저하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Blankenstein et al., 2022). 신경생물학적 스트레스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은 자율신경계와 함께 작용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HPA 축과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lankenstein et al., 2022).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스트레스 체계는 청소년기에 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은 청소년 뇌의 조직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Sisk & Zehr, 2005), 청소년의 뇌는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Coupé et al., 2017; Courchesne et al., 2000), 스트레스의 영향에 더 취약하고 민감하다(Wu et al., 2021). 즉,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뇌의 발달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다른 시기보다 높고, 이로 인해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공격성 발달궤적을 도출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발달궤적을 확인하였는데, 아동기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면서 청소년기까지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유형, 아동기에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고 청소년기에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유형,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공격성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유형과 점차 낮아지는 유형 등이 있었고(Brame et al., 2001; Ehrenreich et al., 2014; Xie et al., 2011),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로 14~15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Karriker-Jaffe et al., 2008). 공격성을 8세부터 48세까지 40년을 추적한 종단연구에서는 생애지속형, 아동기한정형, 청소년기한정형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평생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유형과 8세와 19세에는 공격성이 평균 이하였으나 30세에 공격성이 평균보다 높은 후발형을 확인하였다(Huesmann et al., 2009). 아동기한정형과 청소년기한정형은 평생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48세 시기의 범죄행동, 심리사회적 기능, 삶에서의 성취 등의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Huesmann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공격성을 보이

는 유형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평생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유형과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Huesmann et al., 2009), 해당 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공격성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시기에 특히 주목하여 시기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개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기 공격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Gomez-Leal et al., 2022; Henriksen et al., 2021; Valois et al., 2002)과 보호요인(Gomez-Leal et al., 2022; Gubbels et al., 2024)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 요인(예: 성별, 심리적 특성), 가족 요인(예: 가족 구조, 아동 학대), 학교 요인(예: 학교 유대, 학업 성취), 또래 요인(예: 비행 친구와의 교제), 지역사회 요인(예: 지역사회 애착), 그리고 상황적 요인(예: 음주 및 약물 사용)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공격성은 단일 요인(예: 분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그 구조적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접근으로 I³ 모델이 있다 (Finkel, 2014; Finkel & Hall, 2018). 이 모델에서는 세 가지 독립적인 요인의 조합으로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세 가지 요인은 유발요인(instigation), 충동성요인(impellance), 억제요인(inhibition)이다(Finkel, 2014). 이 모델에서 파생된 완벽한 폭풍 이론(perfect storm theory)에 따르면, 유발요인과 충동성요인이 강하고 억제요인이 약할 때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나 공격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Finkel, 2014). 수십 년 전, 범죄와 비행의 유발요인이나 충동성요인에 주목하던 기존 이론들과 달리, 이를 통제하는 억제요인에 주목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다. 허쉬(Hirschi, 1969)는 ‘왜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범죄와 비행을 억제하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허쉬의 이론에서는 규범에 대한 순응이 사회유대 (social bond)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네 가지 요소는 애착 (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vement), 그리고 신념(belief)이다(Hirschi, 1969). 애착은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의미한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사회 질서는 합의에 기반하며, 부모나 교사 등은 일반적으로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타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전념은 장기적인 교육적 또는 직업적 목표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를 의미한다(Hirschi, 1969). 목표에 대한 전념의 정도가 강하다면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방해하고 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Hirschi, 1969). 참여는 학교, 스포츠, 방과후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Hirschi, 1969).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비행에 참여할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Hirschi, 1969). 신념은 사회 규칙의 도덕적 타당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Oleson, 2019; Hirschi, 1969). 전통적인 사회 규칙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법과 규칙이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제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해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의 요소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약물 사용 등 특정 비행 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Erickson, 2022). Erickson(2022)은 사회유대이론을 적용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중 특히 애착과 전념이 유형 구분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전념이 매우 낮은 집단, 전념이 다소 낮은 집단, 애착이 매우 낮은 집단, 애착과 전념이 모두 높은 집단 등 네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은 약물 종류별로 상이한 사용 가능성과 관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유대가 모든 약물 사용에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특정 유대 요소가 특정 약물 사용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가 비행을 억제하는지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김부경 외, 2023), 청소년 공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행에는 폭행, 절도, 성폭력,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이 포함된다(Whitehead & Lab, 2022). 사회유대이론을 바탕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국내 연구 25편을 검토한 논문(김부경 외, 2023)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을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구지지, 부모애착, 친구애착, 가족지지 등으로, 전념을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학업성적, 그릿, 학업성취도 등으로, 참여를 청소년활동, 학교참여 등으로, 그리고 신념을 도덕적 죄책감으로 조작화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비행은 여러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유대의 요소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격성을 억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유대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회유대의 요소 중 애착은 친구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청소년 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점차 강화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비교의 핵심 기반이 된다(Berndt, 2002). 특히 16~18세 시기에는 또래 관계의 질이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정서 조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또래 관계는 공격성 발현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Veenstra & Laninga-Wijnen,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애착을 중심으로 한 사회유대의 보호적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공격성 예방 전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념은 학교적응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전념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Hirschi, 1969).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학업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일상생활의 핵심 공간이자 장기적 진로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은 학업 성취와 학교 규범 준수 등 장기적 목표에 대한 헌신과 직결된다(Hofkens & Pianta, 2022). 즉, 학교적응은 청소년 시기의 전념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여는 문화체험, 체력단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로 측정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참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함으로써 비행에 관여할 기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Hirschi, 1969). 청소년활동 참여는 학교 안팎에서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에 청소년을 몰입시키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에너지 발산과 자기통제력 강화, 그리고 협력·책임·규칙 준수와 같은 사회적 기술 습득을 촉진한다(Wachsmuth et al., 2023).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이 또래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을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대표성을 가진 패널조사로, 다양한 소득계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19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 특정 주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아동 부가조사는 1차(초등학교 4~6학년), 4차(중학교 1~3학년), 7차(고등학교 1~3학년), 10차(초등학교 4~6학년), 13차(중학교 1~3학년), 16차(고등학교 1~3학년), 19차(초등학교 4~6학년)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6차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1, 2, 3학년 32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사회유대: 애착, 전념, 참여

친구애착은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에 해당하며, 서울아동패널(2005)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이 문항들은 지난 1년간 경험한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학교적응은 사회유대이론에서 ‘전념’에 해당하며, 지난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22). 문항의 예시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참여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참여’에 해당하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전학, 문화체험 및 방문, 예술 관련 감상 등의 활동’,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취미·특기 관련 활동’, ‘체력단련,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및 환경보호관련 활동’, ‘졸업 후 진학, 취업과 관련된 진로 상담’, ‘직장 체험·탐방, 직업캠프 등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총 7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0=없음, 1=있음)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2) 공격성

공격성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해현, 홍강의와 하은혜(1998)가 번안한 K-CBCL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총 1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내 물건을 부순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9.0와 Mplus 8.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 유대 요소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성별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sampl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 분류 정확도인 Entropy(Celeux & Soromenho, 1996), 각 유형 비율, 그리고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o et al.,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의 p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AIC, BIC, SABIC 는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Entropy는 높을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80 이상이면 집단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Clark & Muthén, 2009). LMR-LRT와 BLRT는 잠재프로파일이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χ^2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p 값이 .05보다 작으면 k 개 모형이 $k-1$ 개 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각 잠재집단의 비율이 통계적 해석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최소 기준인 전체 표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Nylund et al., 2007). 셋째,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각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이름을 결정한 후, 프로파일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 Bolck 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자 170명(42.3%), 남자 155명(47.4%)이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97명(29.8%), 2학년 115명(35.4%), 3학년 113명(34.8%)이다. 가구형태는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가구가 대부분(93.2%)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N=325)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	170	42.3
	남	155	47.7
학년	고등학교 1학년	97	29.8
	고등학교 2학년	115	35.4
	고등학교 3학년	113	34.8
가구형태	모자	9	2.8
	부자	10	3.1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3	0.9
	기타	303	93.2

주요 변수인 친구애착, 학교적응, 참여, 공격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친구애착 수준의 평균은 3.55(SD=5.12), 학교적응 수준의 평균은 21.18(SD=3.26), 참여 수준의 평균은 .82(SD=1.16), 공격성의 평균은 1.62(SD=2.45)로 나타났다. 사회유대 요소인 애착, 전념, 참여 변수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어 각 변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표준화한 후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사용하였다. 친구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은 낮았다($r=-.30$, $p<.001$). 친구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r=-.12$, $p<.05$), 그리고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r=-.16$, $p<.01$) 공격성의 수준은 낮았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1. 애착(친구애착)	-			3.55	5.12	0-12
2. 전념(학교적응)	-.30***	-		21.18	3.26	12-27
3. 참여	-.10	.10	-	.82	1.16	0-6
4. 공격성	-.12*	-.16**	.11	1.62	2.45	0-14

* $p<.05$, ** $p<.01$, *** $p<.001$

2. 사회유대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집단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Nylund et al., 2007). 이를 위해 집단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각 모형의 적합도 지표를 비교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의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지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수 있다(Nylund et al., 2007). 그림 1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일 때와 4개일 때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Entropy는 모든 모형에서 .98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상대적 모형 적합도는 LMR-LRT의 p 값이 3개 집단 모형과 4개 집단 모형일 때 유의하지 않았고, BLRT의 p 값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분류 비율을 살펴본 결과, 4개 및 5개 집단 모형은 최소 집단 비율이 0.92%로 5% 미만인 소수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2051.601	1833.456	1710.138	1667.071
	BIC	2093.223	1893.997	1789.598	1765.451
	SABIC	2058.332	1843.246	1722.988	1682.981
분류 정확도	Entropy	1.000	.995	.999	.977
	유형 1	67.39%	67.38%	0.92%	61.45%
분류 비율	유형 2	32.61%	6.26%	6.17%	0.92%
	유형 3		26.37%	66.46%	26.44%
	유형 4			26.44%	5.01%
	유형 5				6.17%
	LMR-LRT	.000	.122	.013	.240
모형비교 검증	BLRT	.000	.000	.000	.000

주: LMR-LRT와 BLRT는 p 값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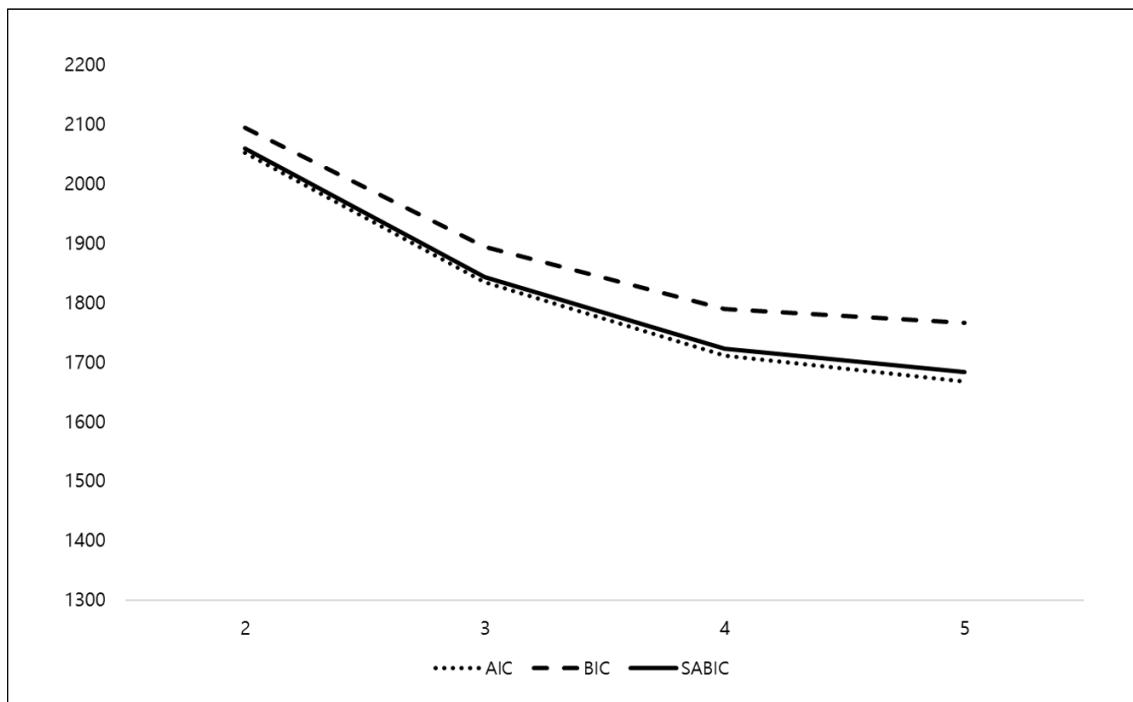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AIC, BIC, SABIC) 변화

잠재프로파일별 사회유대 요소 변수의 평균 z점수를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1을 전념·참여, 유형 2를 중애착, 유형 3을 고애착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1은 낮은 수준의 애착과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념과 참여를 나타냈다. 유형 2는 중간 수준의 애착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념과 참여를 나타냈다. 유형 3은 높은 수준의 애착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념과 참여를 나타냈다.

표 4
잠재프로파일별 사회유대 요소의 평균 z점수와 표준오차

사회유대 요소	유형 1: 전념·참여		유형 2: 중애착		유형 3: 고애착	
	평균 z점수	표준오차	평균 z점수	표준오차	평균 z점수	표준오차
애착	-.683	.006	.894	.044	1.534	.016
전념	.209	.068	-.361	.202	-.447	.087
참여	.065	.069	-.099	.263	-.142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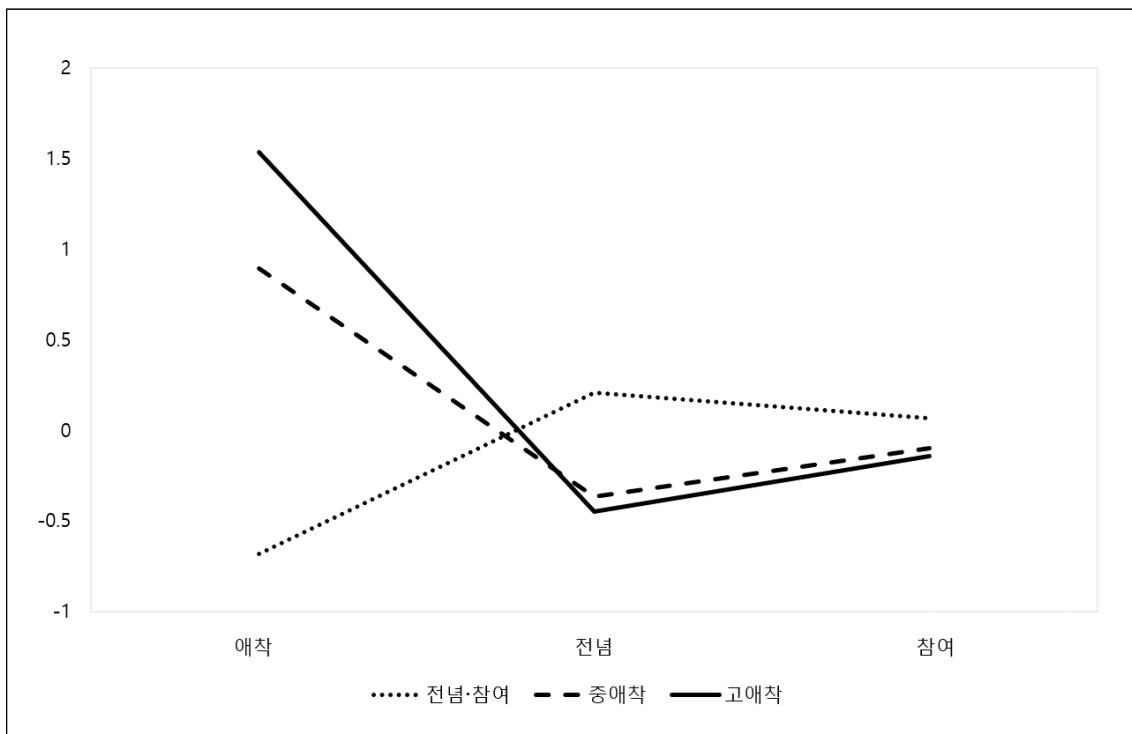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유대 잠재프로파일

3.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공격성 차이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공격성 차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중간 수준의 애착을 나타낸 유형 2는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1.90$, $SE=0.636$). 그 다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전념과 참여를 나타낸 유형 1의 공격성이 높았고($M=1.79$, $SE=0.172$), 마지막으로는 높은 수준의 애착을 나타낸 유형 3의 공격성이 가장 낮았다($M=1.10$, $SE=0.217$). 어느 집단 간에 공격성 차이가 있는지 사후 검정을 한 결과, 고애착 유형과 전념·참여 유형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애착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공격성이 전념과 참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공격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공격성 차이

	유형 1: 전념·참여	유형 2: 중애착	유형 3: 고애착	Overall Test χ^2	사후 검정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공격성	1.79(.172)	1.90(.636)	1.10(.217)	6.57*	1>3

*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6차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유대 요소인 애착, 전념, 참여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유대 요소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세 유형은 ‘전념·참여’, ‘중애착’, ‘고애착’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전념·참여’ 유형은 전체의 67.38%로 낮은 수준의 애착과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념과 참여를 나타냈다. 전체의 6.26%에 해당하는 ‘중애착’ 유형은 중간 수준의 애착과 낮은 수준의 전념 및 참여를 나타냈다. 세 번째 유형은 ‘고애착’으로 전체의 26.37%를 차지하였고 높은 수준의 애착과 낮은 수준의 전념 및 참여를 나타냈다. 허쉬(Hirschi, 1969)의 사회유대 요소에 따라 잠재 집단을 분류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최근의 한 연구(Erickson, 2022)에서 사회유대 요소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미국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만 16~18세)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대마초, 코카인 등), 다중약물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애착은 부모애착으로, 전념은 미래 직업적 성공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로, 참여는 학기 중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로, 신념은 법을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명제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로 측정하였다(Erickson, 2022). 사회유대 잠재프로파일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낮은 수준의 전념을,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전념을, 세 번째 유형은 낮은 수준의 애착을 나타냈으며, 네 번째 유형은 모든 사회유대 요소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Erickson, 2022). 선행연구(Erickson, 2022)에서 낮은 수준의 전념을 나타낸 첫 번째 유형은 본 연구의 유형 2(중애착)과 유형 3(고애착)의 특성과 비슷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애착을 나타낸 세 번째 유형은 본 연구의 유형 1(전념·참여)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Erickson, 2022)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애착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과 전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 공격성은 전념·참여 유형에 비해 고애착 유형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쉬의 연구 및 사회유대이론의 검증을 시도한 후속 연구에서는 전념이 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참여의 경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행에 참여할 시간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범죄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애착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친구와도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이 친구들의 비행 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전념 및 참여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친구애착이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애착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전념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전념과 참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애착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유대 요소를 바탕으로 잠재 집단을 분류한 선행연구(Erickson, 2022)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네 유형 중 한 유형은 애착이 높고 전념이 낮은 유형이었고, 또 다른 유형은 애착이 낮고 전념이 높은 유형이었다. 선행연구(Erickson, 2022)에서 애착은 부모애착을, 전념은 미래 직업적 성공에 대한 가치의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친구애착) 및 전념(학교적응)과는 다른 변수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전념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애착 수준이 높을 때 전념 수준은 낮고, 전념 수준이 높을 때 애착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 관계는 청소년이 보유한 시간과 인지·정서적 자원이 한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 친구 관계 유지와 학업 수행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심리적 투자를 요구하므로, 한 영역에 대한 몰입이 다른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자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또래 집단과 학업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이 특정 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할수록 그 집단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역할에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학업을 덜 중시하는 또래 문화 속에서는 친구와의 강한 정서적 애착이 학업 전념과 부적 상관을 보일 수 있으며, 학업에 전념하는 청소년들은 공부에 몰입하느라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유대 요소를 바탕으로 잠재 집단을 분류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반복되는 양상인지, 혹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맥락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변수 중심적 접근이 아닌 개인 중심적 접근을 활용하여(Howard & Hoffman, 2018) 청소년을 사회유대 요소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집단을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념과 참여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는 친구애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의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친구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허쉬(Hirschi, 1969)는 친구와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친구가 비행에 관여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비행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즉, 친구의 비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순응 정도이며, 친구에 대한 애착은 높을수록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Hirschi, 1969; Oleson, 2019).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념·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은 친구애착이 낮고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또래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차원에서 또래 멘토링, 협력 프로젝트, 공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또래 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으로는 청소년 사회유대 요소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야 한다. 특히 전념·참여 수준은 높지만 친구 애착 수준이 낮아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학업·진로 준비와 병행하여 또래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또래 멘토링, 집단 상담, 사회성 향상 활동을 결합한 통합형 개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 중 애착, 전념, 혼신을 살펴보았고 신념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각 요소가 독립적이고 구별된 개념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Costello & Laub, 2020; Hirschi, 1969; Oleson, 2019). 사회유대의 각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념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소를 통해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반영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 해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 허쉬(Hirschi, 1969)가 제시한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청소년 잠재 집단을 분류한다면 이론을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유대 요소인 애착, 전념, 참여를 살펴봄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각 요소 당 하나의 변수만을 살펴보았다. 전념과 참여는 각각 학교생활에 대한 전념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로 측정되어 해당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애착을 친구애착으로만 측정한 점은 부모애착, 교사애착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애착과 애착 개념의 다차원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념이 단순화되어 해석될 수 있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애착이 공격성

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의 요소 중 애착에 특히 주목하여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수준에 따라 공격성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탐색할 수 있다. 셋째,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회유대 요소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류와 유형별 공격성 차이를 살펴본 탐색적 연구로, 성별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나 그 외 변수 간의 인과관계, 매개관계, 조절관계 등 다양한 상호작용은 규명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 상황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Gomez-Leal et al., 2022; Henriksen et al., 2021; Valois et al., 2002), 그리고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유발요인과 충동성요인 (Finkel & Hall, 2018)을 주요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유대 요소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부경, 리란메이, 박지수, 송태민 (2023).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비행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1(8), 181-212. doi:10.30916/kera.61.8.181
- 서울아동패널 (2005).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설문지*.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오경자, 이해련, 흥강의, 하은혜 (1998).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doi:10.1007/bf02294359
- Allen, J. J., & Anderson, C. A. (2017). Aggression and violenc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In P. Sturme (Ed.), *The Wiley handbook of violence and aggression* (pp. 1-14). John Wiley & Sons Ltd. doi:10.1002/9781119057574.whbva001
- Baron, R. A., & Richardson, D. R. (1994). *Human aggression* (2nd ed.). New York: Plenum.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doi:10.1111/1467-8721.00157
- Blankenstein, N. E., Vandenbroucke, A. R., de Vries, R., Swaab, H., Popma, A., & Jansen, L. (2022). Understanding aggression in adolescence by studying the neurobiological stress system: A systematic review. *Motivation Science*, 8(2), 133-149. doi:10.1037/mot0000259
- Bolck, A., Croon, M., & Hagenaars, J. (2004). Estimating latent structure models with categorical variables: One-step versus three-step estimators. *Political Analysis*, 12(1), 3-27. doi:10.1093/pan/mpb001
-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03-512. doi:10.1111/1469-7610.00744

- Bushman, B. J., & Huesmann, L. R. (2010). Aggress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833-863). John Wiley & Sons, Inc.
- Celeux, G., & Soromenho, G.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 195-212. doi:10.1002/9780470561119.socpsy002023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Available online at: <http://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Costello, B. J., & Laub, J. H. (2020). Social control theory: The legacy of Travis Hirschi's causes of delinquency.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3(1), 21-41. doi:10.1146/annurev-criminol-011419-041527
- Coupé, P., Catheline, G., Lanuza, E., Manjón, J. V., &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2017). Towards a unified analysis of brain maturation and aging across the entire lifespan: A MRI analysis. *Human Brain Mapping*, 38(11), 5501-5518. doi:10.1002/hbm.23743
- Courchesne, E., Chisum, H. J., Townsend, J., Cowles, A., Covington, J., Egaas, B., ... & Press, G. A. (2000). Normal brain development and aging: Quantitative analysis at in vivo MR imaging in healthy volunteers. *Radiology*, 216(3), 672-682. doi:10.1148/radiology.216.3.r00au37672
- Ehrenreich, S. E., Beron, K. J., Brinkley, D. Y., & Underwood, M. K. (2014). Family predictors of continuity and change i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from ages 9 to 18. *Aggressive Behavior*, 40(5), 421-439. doi:10.1002/ab.21535
- Erickson, J. H. (2022). Birds of a feather get high together: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ocial bond with latent class analysis and a test with different forms of drug us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7(4), 672-696. doi:10.1007/s12103-022-09699-0
- Finkel, E. J. (2014). The I³ Model: Metatheory, theory, and evidence. In J. M. Olson, & M. P. Zanna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San Diego: Academic Press. doi:10.1016/B978-0-12-800052-6.00001-9
- Finkel, E. J., & Hall, A. N. (2018). The I³ model: A meta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ggress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9, 125-130. doi:10.1016/j.copsyc.2017.03.013

- Gómez-Leal, R., Megías-Robles, A., Gutiérrez-Cobo, M. J., Cabello, R., & Fernández-Berrocal, P. (2022). Person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volved i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3-4), NP1489-NP1515. doi: 10.1177/0886260520926322
- Gubbels, J., Assink, M., & van der Put, C. E. (2024). Protective factors for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What is the meta-analytic evid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2), 233-257. doi:10.1007/s10964-023-01878-4
- Henriksen, M., Skrove, M., Hoftun, G. B., Sund, E. R., Lydersen, S., Tseng, W. L., & Sukhodolsky, D. G. (2021). Developmental course and risk fa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late adolescenc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2, 628-639. doi:10.1007/s10578-020-01049-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kens, T. L., & Pianta, R. C. (2022).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engagement in school, and student outcomes. In Reschly, A. L., & Christenson, S. L.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pp. 431-449). Springer, Cham. doi:10.1007/978-3-031-07853-8_20
- Howard, M. C., & Hoffman, M. E. (2018). Variable-centered, person-centered, and person-specific approaches: Where theory meets the method.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1(4), 846-876. doi:10.1177/1094428117744021
- Huesmann, L. R., Dubow, E. F., & Boxer, P. (2009). Continuity of aggress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s a predictor of life outcomes: Implications for the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model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5(2), 136-149. doi:10.1002/ab.20300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227-1236. doi:10.1007/s10802-008-9245-5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doi:10.1002/0471721182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Oleson, J. C. (2019). The criminology of Travis Hirschi: Social control and beyond. In J. C. Oleson, & B. J. Costello (Eds.), *Fifty years of Causes of Delinquency, Volume 25* (pp. 1-26). Routledge. doi:10.4324/9780429020438
- Polanin, J. R., Espelage, D. L., Grotjahn, J. K., Spinney, E., Ingram, K. M., Valido, A., El Sheikh, A., Torgal, C., & Robinson, L. (2021).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school violence and mental health, school performance, and criminal or delinquent acts. *Psychological Bulletin*, 147(2), 115-133. doi:10.1037/bul0000314
- Ramirez, J. M. (2003). Hormones and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6), 621-644. doi:10.1016/S1359-1789(02)00102-7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doi:10.1214/aos/117634413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doi:10.1007/BF02294360
- Sisk, C. L., & Zehr, J. L. (2005). Pubertal hormones organize the adolescent brain and behavior. *Frontiers in Neuroendocrinology*, 26(3-4), 163-174. doi:10.1016/j.yfrne.2005.10.003
- Veenstra, R., & Laninga-Wijnen, L. (2023). The prominence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network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L. J. Crockett, G. Carlo, & J. E. Schulenberg (Eds.), *APA handbook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velopment* (pp. 225-24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0000298-014
- Valois, R. F., MacDonald, J. M., Bretous, L., Fischer, M. A., & Drane, J. W. (2002). Risk factor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violence and aggress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6(6), 454-464. doi:10.5993/AJHB.26.6.6
- Wachsmuth, S. T., Lewis, T. J., & Gage, N. A. (2023). Exploring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school eng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for students

-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48(4), 255-268. doi:10.1177/01987429231166675
- Whitehead, J. T., & Lab, S. P. (2022). *Juvenile justice: An introduction* (10th ed.). Routledge. doi:10.4324/9781003167112
- Wu, J., Tong, H., Liu, Z., Tao, J., Chen, L., Chan, C. C., & Lee, T. M. (2021). Neurobiological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re different between adolescents and middle-aged adults. *Brain Imaging and Behavior*, 15, 846-854. doi:10.1007/s11682-020-00294-7
- Xie, H., Drabick, D. A., & Chen, D. (201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from lat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 *Aggressive Behavior*, 37(5), 387-404. doi:10.1002/ab.20404

ABSTRACT

Latent profiles of social bond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aggression*

Yoon, Miyoung**

Based on Hirschi's (1969) social bond theory, this study classified adolescents into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social bond patterns and examined differences in aggression among these groups. Social bond theory explains how weakened bonds to society increase the likelihood of delinquent or aggressive behavior, whereas stronger bonds restrain such behaviors. This study focused on three elements of social bonds—attachment, commitment, and involvement—based on data obtained from 325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6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identified three subgroups: commitment/involvement, moderate attachment, and high attachment. The commitment/involvement group showed low attachment but high commitment and involvement, the moderate attachment group showed moderate attachment and low commitment and involvement, and the high attachment group showed high attachment but low commitment and involvement.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high attachment group than in the commitment/ involvement group, suggesting that emotional attachment with peers functions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aggres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different configurations of social bonds are associated with distinct level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target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ailored to adolescents' social bond patterns.

Key Words: social bond theory, latent profile analysis, adolescent, aggress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Humanities·Social-Science Research Promotion of Pusan National University(2022).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